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2004

Me1.8

자친구를 사귀 적도 있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도 없는데요. 그 애를
 불안해요. 그런데 제 이런 감정이 그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헛갈리
 면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인 것입니까? 결혼한 여성에게도 이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의
 렸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
 고 자질해버린 모양이에요.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게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
 었습니다.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오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 집에 너가 레즈비언인 사실을 내가 알리면
 아느냐?"면서 빌려간 돈과 저의 신용카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
 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너희 집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겠다"면서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간했습니

자친구를 사귀 적도 있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도 없는데요. 그 애를
 불안해요. 그런데 제 이런 감정이 그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헛갈리
 면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의 기혼 여성입니다. 저는 동성애자인 것입니까? 결혼한 여성에게도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의
 렸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
 고 자질해버린 모양이에요.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
 었습니다. 아웃팅 협박을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오
 큰 소리를 치면서 "너희 집에 너가 레즈비언인 사실을 내가 알리면
 아느냐?"면서 빌려간 돈과 저의 신용카드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
 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너희 집 전화
 인 사실을 알려겠다"면서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강간했습니

끼리끼리 상담사례집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Tel. 02-703-3542 Fax. 02-703-3543
e-mail : kiri9411@chollian.net URL: www.kirikiri.org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매뉴얼

발행일 2004년 7월 30일

편집위원 나루, 린, 박통, 반디, 이산, 토리, 핑

편집디자인 철이

펴낸곳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Tel (02) 703-3542 Fax (02) 703-3543

E-mail kiri9411@chollian.net

URL www.kirikiri.org

목차

04 들어가기

05 기초정보

09 상담스킬

13 상담 및 내담 사례

- 14 청소년 상담
- 23 성정체성
- 39 동성 교제
- 49 성관계
- 57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
- 63 폭력범죄
- 71 기혼여성
- 81 동성애 정보
- 87 기타
- 93 전화상담

101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 101 국내기관
- 109 국외기관

107 참고자료

- 107 출판자료
- 128 영상자료

140 끼리끼리 소개

첫 번째 상담사례집 발간에 앞서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나침반이 되길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 운동모임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는 1994년 창립한 이후 인권운동단체로서 10년 여 동안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여성을 위한 상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끼리끼리>에서는 전화상담을 비롯하여 홈페이지(kirikiri.org)를 통한 게시판 상담, e-mail 상담 그리고 면접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 여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대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공인이 늘어나고 성소수자에 관한 담론이 활발해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끼리끼리>가 상담해 온 상담 사례의 심각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면이 있을 뿐 성소수자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2류 시민에 불과하며, '변태',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를 둘러싼 온갖 허위 정보와 그릇된 편견은 우리를 여전히 에이즈의 주범으로 몰고 있으며, 강간·협박·금품탈취·폭력 등의 혐오 범죄의 표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는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폭력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물리적·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거나 올바른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가시화된/비가시화된 인권 유린이 일상 생활에서는 물론, 청소년 및 여성 상담기관 현장에서조차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 찾게 되는 신경정신과에서는 정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기 일쑤이고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허위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를 접하게 되더라도 성소수자 관련 상담의 경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 그리고 편견 등으로 온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끼리끼리>에서는 첫 번째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성소수자 여성들에게는 물론 여성단체 활동가, 상담기관 상담가 등에게 성소수자 관련 상담에 임할 때 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작은 책자가 상담가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인식과 상담 기초 지식을 갖게 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생각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정체성으로 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도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제정과 환경에서도 상담사례집 제작을 위해 애쓰신 나루님, 린님, 박통님, 만디님, 이산님, 토리님, 핑님, 철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8월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기초 정보

■ 동성애 / 동성연애

동성애는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동성연애에는 동성과의 어떤 성적인 경험 내지는 성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부정적인 점에서 시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 지향성을 무시한 채 동성과의 성 행위만을 동성애라고 부르는 것은 '동성애'와 '동성연애'의 개념 차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가 아니라 존재being이며 성행위 등은 존재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동성연애로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동성애자 / 동성연애자

동성애자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으로 동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자신의 지향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동성과 섹스를 했다거나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것만으로 동성애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타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단정 짓거나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연애와 마찬가지로 동성연애자 역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 레즈비언(lesbian)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합니다.

어원은 그리스의 에게해(海)의 레스보스(Lesbos) 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레즈비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류 서정시인 사포(Sappho)가 레스보스 섬을 본거지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레즈비언은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란 뜻에서 유래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 게이(gay)

남녀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 쓰입니다. 게이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즐거운, 기쁜'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주위의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에 대항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바이섹슈얼(bi-sexual)

양성애자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정서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양성애자들이 양성 중 어느 성에 더 이끌리느냐의 문제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이성(異性)이라 인식하고 행동해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의상, 머리 스타일, 행동 등 개별적인 몇몇 욕구나 현상으로 트랜스

젠더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트랜스 젠더들은 대부분 매우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 온 경험을 가집니다.

트랜스 젠더와 성전환이라는 표현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트랜스 젠더는 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성을 올바르게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나의 생물학적인 성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 성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인 것입니다.

■ 이반

이반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종로의 게이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성애자를 의미하는 일반(一般)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반(二般)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성애자의 자조적, 냉소적 어조가 담겨있었으나, 후에 이성애자와 다르다는 뜻인 이반(二)을 이(二)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반은 이성애자를 제외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의 모든 성 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퀴어(queer)

퀴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묘한, 이상한, 괴상한'으로, 처음에는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단어는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퀴어 역시 이반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주의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징물

레인보우(rainbow)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6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레인보우는 동성애자의 상징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각 색깔들은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빨강은 삶(life), 주황은 치유(healing), 노랑은 태양(sun), 초록은 자연(nature), 파랑은 예술(art), 보라는 영혼(spirit)입니다.

분홍색 역삼각형(pink inverted triangle)

분홍색 역삼각형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수용소에 수감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분홍색 역삼각형을,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검은색 역삼각형을 달게 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 나치에 의한 동성애자들의 억압에 의미를 두어 저항과 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동성애자들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커밍아웃(coming out)

커밍아웃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e out of closet)' 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말로, 성 소수자로 정체화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드러내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성 소수자 자기 자신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에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며,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웃팅(outing)

아웃팅은 성 소수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개인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 소수자 개인의 자율성이 배제되는 아웃팅은 성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악의에 의한 아웃팅은 물론이고, 별 생각이나 의도 없이 한 아웃팅이라 할 지라도 성 소수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아웃팅은 범죄라는 인식을 키우는 것과 아웃팅을 예방,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호모(homo)

호모는 동성애를 뜻하는 'homosexual'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동성애자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만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모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 호모포비아(homophobia)

호모포비아는 동성애 혐오증을 뜻합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나 지식 없이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막연한 두려움, 무조건적인 거부감, 혐오 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모포비아는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의 견고한 틀 속에서 이성애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에게도 내면화 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 중에도 자신의 호모포비아로 괴로워 하는 경우가 있으며 호모포비아로 인하여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담 스킬

여성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1.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레즈비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문화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레즈비언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심리학적 훈련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와 과거의 레즈비언에 대한 문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조사문헌일 수도 있고, 임상자료일 수도 있고,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문헌일 수도 있다. 이것을 통해 레즈비언에 대한 요구되는 배경과 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상담자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될 수 있는 한 정규적으로 참여하라. 그를 통해 레즈비언의 정보망, 모이는 장소, 지지그룹과 같이 레즈비언을 위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4.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특별한 스트레스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에 따르는 공포감, 드러내는 것의 장점과 단점, 차별의 영향, 가시성이나 사회적 지지의 부족, 성역할 위반의 장단점, 내재화된 호모포비아의 영향 등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5. 상담자는 정체성 형성이론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성 형성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성적 지향은 이성애나 동성애나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유동적인 현상이다. 또 정체성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어떤 단계를 경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발전경로를 탐색함으로써 각 시기마다의 주요한 특징을 이해하고 상담자의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6.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호모포비아, 내재화된 호모포비아의 양식들을 탐색하라.

7. 상담자는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여성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성으로서의 사회화와 그것이 동성애에서 발현될 때의 약점과 강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8. 상담자는 레즈비언 내담자의 삶에서, 신념에서, 감정에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호모포비아의 영향을 내담자가 파헤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이성애적 편견, 혼란, 오해 등에서 자신이 자유로

울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호모포비아를 탐색하는 일에 긍정적, 개방적 자세를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

9.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체성 문제에 관해 자신과 사회가 다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만족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 길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0. 상담자는 레즈비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제도 및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또한 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상담을 청하는 성소수자들은

1. 우리와 통화하기 위해 며칠, 몇 년을 애쓰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2.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전화한 것입니다.
3. 존중받고 싶고,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갖고 싶고,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내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4. 남성중심, 폭력옹호, 동성애 공포증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아 온 사람입니다.
5. 공감과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6. 자기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담자에게 힘을 주는 한마디

1. 정말 힘드시겠네요?
2. 네, 충분히 공감입니다.
3.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4. 상담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5.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디어 오시니 참 훌륭합니다.
6. 지금까지 버텨온 힘으로 뭐든지 잘 하실 수 있어요.
7. 정말 아까운 여자예요.
8. 당신 같은 아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안타깝군요.
9. 전화 참 잘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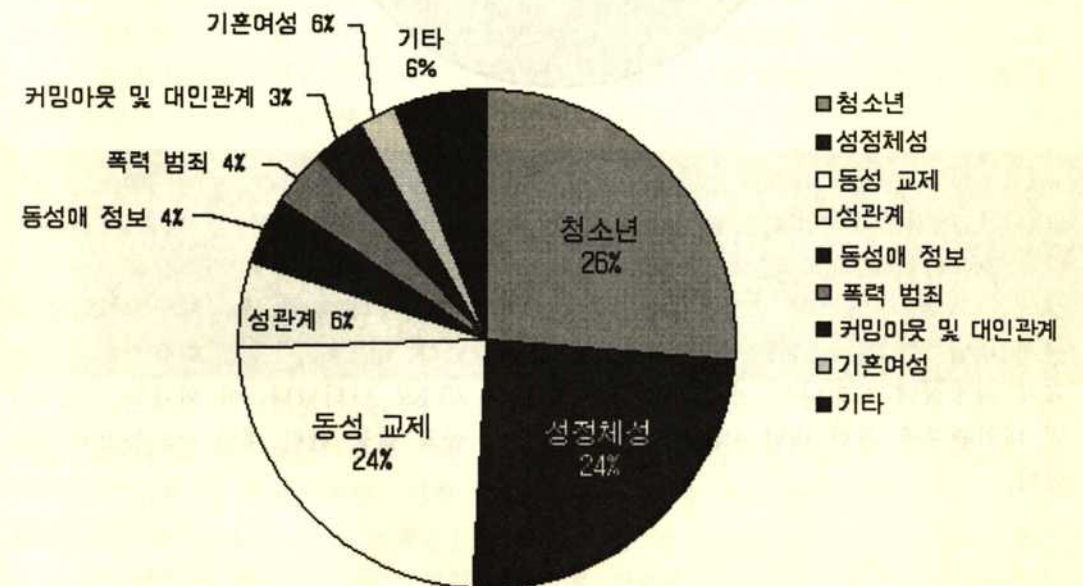
내담자를 좌절시키는 태도

1. 내담자를 비난하지 마세요.
2. 혼내듯이 말하지 마세요.
3. 내담자를 귀찮아하지 마세요.
4. 짜증내서도 안돼요.
5. 흥분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6. 내담자의 말을 끊지 마세요.
7. 문제의 원인을 내담자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지나친 공감은 피하세요.
9. 내담자와의 지나친 동일시는 삼가하세요.
10. 답답해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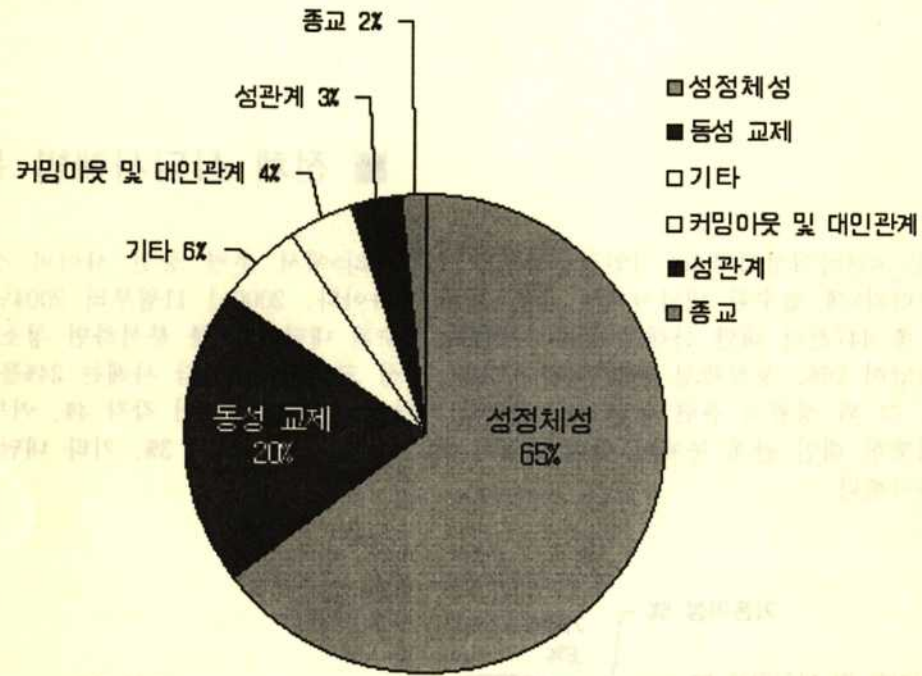
상담 및 내담 사례

■ 전체 상담사례별 통계

다음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상담실 <징검다리>에 접수된 내담사례에 관한 통계 결과이다.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가 접수 되었다. 접수된 내담 사례를 분석하면 청소년 관련 내담이 26%, 성적체성 관련 내담이 24%, 동성 교제 관련 내담 사례는 24%를 차지했다. 그 외 성관계 관련 내담 6%, 정보와 폭력·범죄 관련 내담이 각각 4%, 커밍아웃을 비롯한 대인 관계 문제에 관한 내담이 3%, 기혼 여성 내담이 3%, 기타 내담이 6%를 차지했다.



□ 청소년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청소년 관련 내담은 26%(11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청한 내담 내용으로는 '나는 동성애자인가?'등 과 같은 성정체성 관련내담이 전체 내담 사례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정체성 내담 다음으로는 동성 교제 과정상에 드러나는 어려움에 관한 내담이 2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에 관한 내담 4%, 성관계 내담 3%, 종교 갈등 관련 내담 2% 등으로 나타났다.

제가 이반이면 어찌죠?

전 여자구요. 언젠가부터 같은 반인 그 애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갈수록 그 친구에게 호기심이 가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알고 싶고. 제가 동성애자가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을 좋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야한 꿈만 꾸게 되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도 생겨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근데 전 그 친구가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겁이나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서 고민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의 누군가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 성적 호감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동성애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지 않는다면(혹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누구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님이 좋아하는 친구에 대한 감정이 그야말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지속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성의 친구에게 이와 유사한 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성 친구에게만 호감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성의 친구에게든, 이성의 친구에게든 호감을 갖게 되면 그 친구와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동성애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가 이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긍정하게 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경험으로, 한 두 해의 고민으로 결판나듯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성이 무엇이든 야한 꿈의 주인공이 그 사람인 것이 내심 미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동의 없이 행하는 스킨십은 큰 문제이지만, 야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상대가 '동성'인 이유로 더욱 죄책감을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요?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동성애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가 이반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긍정하게 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두 번의 경험으로, 한 두 해의 고민으로 결판나듯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나의 감정을 살펴보고

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내 감정의 중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가?' 라는 질문의 답을 신중하게 찾아가는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정을 하게 되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모두 님께는 최선이고, 소중한 선택이며, 님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친구와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그 친구가 그토록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고자 한다면 살짝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친구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친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전달해 보는 거죠. 또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들려주세요.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고백하고 싶기도 하고, 고백하고 멀어질까 두렵기도 해요.

저는 다소 남성스러운 외모로 초 중학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어서 늘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 어떤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제 마음을 그 친구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표현했다가 그 친구가 저를 벌레 보듯이 쳐다보고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기도 한데, 어찌면 좋을까요?

좋아하는 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지만 고백 이후 친구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고민하시는군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커밍아웃하는 과정에서 늘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나를 벌레 보듯이 하면 어쩌나, 이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쩌나, 친구들이 나를 더 이상 안 만나주면 어쩌나, 친구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면 어쩌나...등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님도 많은 이들이 그랬듯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시는 듯 합니다. 실제로 고백을 하고,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결과는 모두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우려했던 대로 상대방이 너무 놀라고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해서 그나마 유지해 오던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안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서 폭언을 퍼부으

면서 '정신 차려라' 고 말하고 떠나버리는 친구에서부터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위로해 주고, 힘을 주는 친구들까지 그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은 커밍아웃을 할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나름의 준비/대책을 마련합니다. 헤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고백 자체가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심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 그 결과가 어떠한 감당해낼 수 있다는 용기,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나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는 강한 의지 등을 가지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충분히 이후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결과의 다양성을 점쳐보고,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모든 것에 앞서 님 스스로 준비해야 할 것은 동성애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것입니다.

.....
실제로 고백을 하고,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결과는 모두 너무나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백 이후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우려했던 대로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안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저는 이성애자인데, 여자 친구가 너무 좋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제가 여기에 왜 들어온 것인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고 싶어 몇 자 적습니다. 저는 이반이 아닙니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빠들을 좋아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학원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친구는 물론 여자입니다. 저는 오빠들을 좋아했던 경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감정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잘해줘도 저는 행복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저는 이반이 아닙니다.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동성애자인 걸까요?

지금까지 이성을 좋아했던 경험을 했었는데, 최근에 동성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어 많은 걱정을 하시는군요. 내가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 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에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감정과 경험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어렵게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성 친구와의 교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애자인 줄 알고 살아왔고 이성애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 십 년이 지나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오랜 세월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으며 살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이성 친구를 만나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듯 내가 과거에 이성에게 호감을

동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성 친구와의 교체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껴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애자인 줄 알고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 십 년이 지나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의 나를 완전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감정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굳이 'OO애자' 라고 자신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지금 친구에게 느끼는 감정을 천천히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기

대하는 것이 있는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기대를 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게 둘의 관계를 볼 때 유익한 것인지, 그러한 기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친구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배려해야 할지 등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성적체성에 관해서는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또 다시 들려주시고요. 방문, 고맙습니다.

이반인 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으면, 이반인 거죠?

다른 반 친구이기는 하지만 한 친구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구요. 우리는 서로 성관계도 할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단 한번도 이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첫 사랑은 남자였던 걸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애자인데, 아마 그 친구만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은 그렇게 동성인 친구랑 성관계를 했으면 당연히 이반이 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친구는 전학을 가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떨어져 있으니 마음도 멀어진다고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거의 안하는 편이구요. 저도 그 것처럼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앞으로는 이성친구를 사귄 겁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하기도 했으니, 이미 저는 이반이 된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예전에 만나던 동성 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 때문에 곧 '동성애자가 된 것' 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성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동성의 사람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 성적 호감을 갖는 사람 중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정체

화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도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이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정서적인,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것들 즉,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감정 상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 등이 동성애자로 정체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동성 친구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데, 이반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중 3 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레즈비언이었는데요. 지금도 어느 여학생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여성스러운 편인데요, 저는 늘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의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물론 교체를 한 경험은 없지만, 늘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좋아했죠. 하지만 전 제 나이가 너무 어린 것 같고, 이렇게 어린 제가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죠?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는 시기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전부터 동성애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어린이들은 우정만 느껴야 하고, 사랑은 어른들의 전유물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 어린 나이의 사람들도 좋아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우정과 사랑의 감정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정만 느껴야 하고, 사랑은 어른들의 전유물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주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련 서적이거나 자료를 찾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려주세요.

성정체성 혼란은 정말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성장 과정 중에 한번 쯤 겪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우연히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주제가 이상하게도 동성애 문제였는데요, 아내가 동성애자이고, 커밍아웃을 해서 이혼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는 일시적으로 느끼는 현상이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반들이 더 살기 힘들어 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동성애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다루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언짢으셨군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 주려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에서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과 정보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의견과 시각을 전달하는 매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인데, 여전히 몇몇 방송에서는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인 사람들 취급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나아지기는 했답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방송 관계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에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동성애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74년에 그간 정신질환으로 취급해오던 동성애는 공식적으로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무려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로 미국의 정신질환 분류표에 의거하여 공부하고, 치료하는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유독 동성애에 관해서 만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또 최근 호주에서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의 증상을 동성애혐오증이라고 해서 이를 정신질환 분류표에 추가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동성애를 비정상적이고,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는 우리나라 전문의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는 반드시 성인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양 생각하지만, 님도 알다시피 우리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청소년기에 이미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나쁘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보실 때마다 매우 불쾌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 많이 실망하지는 마세요.

몇 번의 동성교제 경험이 있지만, 나는 내가 레즈비언임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대학에 진학 할 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죠. 하지만 저는 벌써 세 번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여자하고 말입니다. 늘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 아직은 단 한번도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여자만 좋아하게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후에 엄마, 아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때는 또 어떻게, 뭐라고 설명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이 없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걱정만 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문제가 생겨 자주 다투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제 스스로가 레즈비언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될까요? 또, 제가 스스로 레즈비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실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성 친구와 교제를 해오시면서 자신이 레즈비언이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많이 힘이 드시는군요. 그리고 레즈비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닦쳐 올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두려워하시고요. 실제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일이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숨겨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고, 알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매순간 바짝 긴장을 하며 살아야 하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만큼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동성 친구에게 호감을 갖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히다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어 질테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름대로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님에게 같은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도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이랍니다. 아주 조금만 용기를 내어

같은 고민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시작해 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욱 커지는 것이랍니다.

밖으로 나오면 살면서 부딪힐 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안에서 평안함과 삶의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몇 개월 안에 자신이 레즈비언일 수 있음을 긍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 을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부정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님의 잘못 이 아닙니다. 레즈비언이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심각하게 퍼뜨려 왔습니다. 동성애자인 사 람들 역시 자신의 성적체성을 혐오하도록 교육시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이렇게 상담실에 글을 남기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용기를 내어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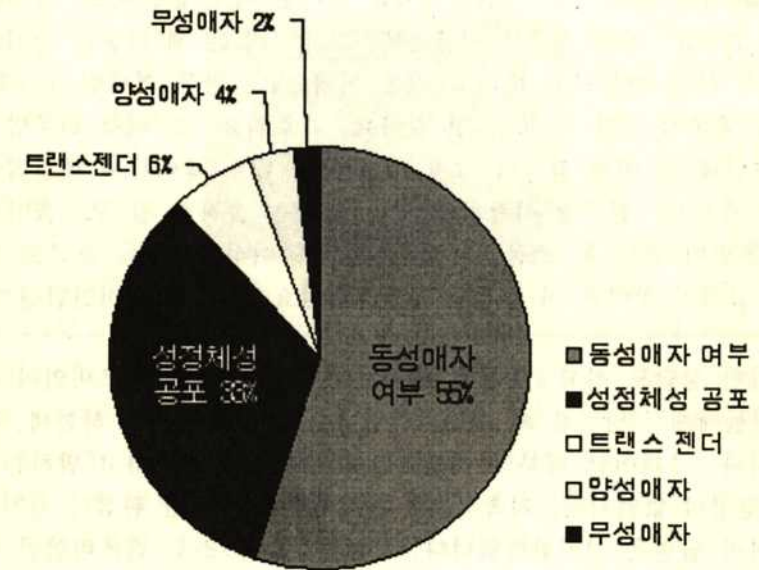
저는 HOT 팬인데, 그럼 저도 이반인가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과 HOT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반인 건가요? 주변 친구들이 HOT 팬들은 칼머리에 차림새가 비슷하다고 하면서 절더러 이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정말 이반인지 가르쳐 주세요.

가수 HOT 팬이군요. 팬클럽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팬클럽 회원들의 외모가 비슷하 슷한데, 님도 머리 스타일이나 차림새가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동성친구에게 강한 호감이나 교제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 본 경험이 있는지요? 제가 읽기에 님은 그런 경험은 없으신 듯한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모두 이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신을 이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외모나 나이, 학벌 등과 상관없이 다양 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모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인 사람에게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성적 호감을 갖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인정하는 사 람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라 고 해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라면 이러저러 한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동 성애가 나쁜 것이고,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편견일 뿐입니다. 그러니 팬클럽 활동을 하시면서 하게 된 머리 스타일과 차림새로 이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것이 생기면 다시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외모처럼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 동성애자 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 성적체성 상담 통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성적체성에 관한 내담은 24%(109건)로 나타났다. 성적체성 내담 통계는 20대 이상 성인 인구를 중심으로 조사·분석 했다. 성적체성에 관련한 내담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관한 내담이 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에 관한 공포를 가진 내담자의 내담 사례가 3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신이 트랜스젠더인가에 관해 묻는 성적체성 관련 내담 6%, 자신이 양성애자인가를 고민하는 내담 4%, 자신이 무성애자인가를 고민하는 내담 2% 등이 접수되었다.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한 친구가 자꾸 눈에 들어와서 괴롭습니다. 그 친구는 동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사귄 적도 있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 적도 없는데요. 그 애를 보면 자꾸 마음이 그래요. 계속 친구로 지냈는데,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라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꺼내면 친구도 못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 애를 하루만 못 봐도 불안해요. 그런데 제 이런 감정이 그저 그 친구를 많이 좋아해서 헛갈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의 성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스물 몇 살이 되도록 이성애자임을 조금도 의심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온 이 감정에 당혹스러워요. 저는 레즈비언인걸까요?

성정체성에 관한 상담도 하고, 활동도 하다보니 주변에 많은 레즈비언이 있습니다. 주변 레즈비언들에게 “당신은 왜 레즈비언입니까?” 라고 묻고는 하는데, 답변이 모두 제각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즈비언이 아니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교제 경험이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동성인 여성에게만 관심이 생긴다” 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답변은 천차만별입니다. “언제부터 스스로 레즈비언인 것 같았는가?” 에 대한 답변 역시 제각각 입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성정체성 혼란을 느낀 사람, 20대·30대·40대가 넘어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사람 등 주변의 레즈비언들의 답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이성애자’ 로 정체화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단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우연한 계기를 통해 동성애적 감정을 경험하고, 동성애적 감정을 경험하는 자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성 친구나 지인들에게 갖는 특별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성에게만 그와 같은 특별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들 주변의 많은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증명하듯 동성을 향한 마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동성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채 그 친구를 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혐오하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감정을 갖게 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큰 용기와 오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내 감정 자체를 나 스스로 건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일. 그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부정하고, 혐오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시면 동성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 읽어 보시고, 레즈비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많은 레즈비언들의 경험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도 할 수 없는 저의 성정체성이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든 그런 제 감정 이외의 것들 때문에 보지 않고 있어요, 괴로워서. 너무나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저주스러워요. 무 좋아했는데, 말할 수 없었어요. 됐어요. 저는 왜 여자를 좋아하는 걸 차라리 말을 하고 거절 까요, 남자를 좋아하면 당했더라면, 지금만큼 남들처럼 고백도 하고, 되면 남들처럼 고백도 하고, 되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절대로 말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말하고 그냥 지낼 수 있을텐데. 텐데. 가능성 없는 사랑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봐 두렵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주위에 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건 아니면 좋을까요. 더 이상 제가 이반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 아닐지, 하는 정말 여러 가지 두려움 는데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때문이었죠. 차라리 될 가능성이 없 지..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는 것도 어서 고백을 못한 거라면 아니 사실 너무 지겹습니다. 저는 왜 여자로 태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했지요, 그 사람은 이성애자였으니까요. 어쨌 어난 걸까요..

남자를 좋아하면 남들처럼 고백도 하고, 되면 사귀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낼 수 있을텐데.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여러 면의 갈등에 부딪치게 된 것 같네요.님께서 이반이라고 정체화하기까지 겪었던 회피와 부정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게 된다는 과정만 해도 결코 쉽지 않은데 상대가 동성이라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나도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절대 내 감정을 상대가 받아들여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은 누구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일이지요. 많은 사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라며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한탄하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라고만 말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람들이 '왜 하필 동성을 좋아하게 되는 걸까'라며 스스로의 성정체성을 한탄하고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저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다” 라고만 말해버리고 싶을 때도 많지요. 동성애자로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어려움들이 님에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님께서 님의 성정체성을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거나 하는 식으로 숨기고 계신 것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서라면, 계속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도 괴로운데 주위에서까지 괴롭히게 되면 님이 무척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렇게

모두에게 숨기고 지내시기에는 남이 너무 답답하실 것입니다. 이반 커뮤니티를 찾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위 누군가에게 “내가 누굴 좋아하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남의 숨통이 한결 트이지 않을까요? 또,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기보다는 “나는 눈이 너무 높아서 말이야” 하는 식으로 그저 연애에 무관심한 사람인 척 한다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멀리에 있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야” 한다든지 하는 편이 남에게 더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남께서도 남자를 좋아하는 척하기가 너무 지겹다고 느끼고 계시고, 또, 이 사회가 워낙 연애를 권하는 사회이다 보니 소개팅을 권하다 든가 선을 보라고 한다든가 하는 등의 주위 사람들의 괴롭힘도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험을 해 온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려요. 많은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저는 저의 이런 성적체성이 정말 싫습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짊짊합니다. 그동안 몇 번 연애도 했지만 친한 친구들한테 말도 꺼내본 적 없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자꾸만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쯤 사귀던 사람과는 정말 매일매일 울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결혼도 할 수 없고 남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같이 살 자신도 없는데 아무리 좋아하면 뭐 하냐고, 우리 서로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깨끗이 헤어지자며 괴롭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냈었지요. 매일이 그랬는데, 아무에게 도움 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었고

누굴 만나면 제 성적체성을 자꾸만 자각하게 되어서 너무 싫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될까요...

하다못해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면 제 성적체성을 자꾸만 자각하게 되어서 너무 싫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동성애자는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가요?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집에서 결혼하라는 이야기도 자꾸 나올 텐데, 그런 상황도 싫고 괴롭습니다. 예전에 한 번 죽으려고 한 적이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 때는 차마 약을 삼킬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 괴롭고 막막해서 그냥 '죽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주변에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고민을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과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죽음을 상상하고, 시도하는 일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은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와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그토록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변에 단 한명이라도 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죽고 싶어 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성애자 친구들을 만나게 된 많은 동성애자들은 말합니다. “진작 나와 같은 고민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찾아보신다면, 남은 남과 같은 고민을 하고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남은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란에 ‘동성애’라는 낱말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끼리끼리>에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진작 나와 같은 고민과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일시적인 감정인걸까요?

지내다보니, 한 친구와 무척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도 나도, 서로 무척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애랑 많이 친하고 싶은가보다, 애도 나랑 많이 친하고 싶은가보다 했지요. 주위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우정이 남들이랑 다른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저는 그 애를 보고 손을 잡고 싶단든지 키스를 하고 싶단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을 잡고 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친구끼리 손잡은 걸로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키스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는 꼭 손을 잡고 걸어 다니고, 가끔 안기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

러워서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는 있었는데요. 갈수록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대체 이 상황이 뭘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래도 제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전에는 남자를 좋아한 적도 많았고 그런데 말이죠. 너무 친하다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헛갈리는 걸까요? 누구나 동성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일시적인 건지 뭔지, 아무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하네요. 저는 레즈비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젠가 '극단적인 이성애자 5%, 극단적인 동성애자 5%, 그 가운데 어느 지점인가에 사람들이 있다' 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레즈비언들 중 이성과 교제를 했던 사람들도 많고,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답니다. '한번 이성애자는 평생 이성애자이다' 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이성 친구에게 사랑을 느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제 감정을 지켜보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결국 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동성애자니, 이성애자니 하는 구분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하면서 구분하는 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동성애자로든, 이성애자로든) "나는 ○○애자이자" 고 정체화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성적체성에 이름을 붙이고, 긍정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성 친구와의 신체적 접촉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좋아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관해 친구와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졌나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꼭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의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관해 친구와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졌나요?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꼭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감정과 신체적 접촉에 대해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의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동성애자 인가요? 양성애자 인가요?

저는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여자한테 끌린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애를 좋아하다가 또 한동안 남자애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곧 또 여자애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여간 혼란스럽네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싫다던가 하는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동성애자인 건 싫어요, 남들이 나를 동성애자라고 하는 상황은 더더욱 싫어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차라리 그냥 남자만 좋아하든가.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성애자의 삶을 살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오던 동성 친구에 대한 감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사회에서 이성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성과 교제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결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교제를 하고,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삶이 '정상적'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무엇이 '정상' 이고, 또 무엇이 '비정상' 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라는 감정을 갖는 것이 '비정상' 이라는 근거는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을 선택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 나가면서 살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은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는 마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은 하루 이틀 안에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고민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지는 마세요.

.....

저는 양성애자일까요?

저는 2년 동안 교체해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직장 동료인 친구에게 자꾸만 마음이 끌려요. 사실, 이 남자친구와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다시 누군가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여자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아직 고백을 해야지, 라거나 뭔가 적극적인 마음이 들지는 않는데요. 저의 성적체성에 대해 고민이 되네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반 친구를 무척 좋아했던 경험이 있기도 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그 엘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양성애자일까요?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친밀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을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남께서 생각하듯이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것이 분명하고, 또 과거 혹은 현재 동성의 누군가를 좋아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들을 모두 긍정하신다면 양성애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만, 소위 '정상'의 이성에 정체성과 소위 '비정상'의 동성에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어느 한 쪽의 정체성만을 갖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께서 지금 현재의 동성인 직장 동료에게 느끼는 감정과,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동일한 종류라고 생각하신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합니다. 남이 양성애자인가, 혹은 동성애자인가, 혹은 이성애자인가 등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결국 남의 몫입니다. 남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누구도 "너의 성적체성은 oo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서 살아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본인의 적극적인 결정 없이는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이 괴로워요.

약 8년 동안 고민하고서 제가 이반인 걸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하필, 이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주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남자같은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삼십대 초반인데요. 이 나이까지 결혼도 안하고 걸모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 상태이니 누굴 만나고 함께 살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남들이 나의 한 부분을 나쁘게 보고 있으니, 그 부분을 그저 없애버리고 싶을 뿐이에요. 어찌죠? 여자를 좋아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저 부정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스스로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인정하고도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정하고 난 후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고요. 긍정하기까지의 세월동안에도 충분히 힘이 들었는데, 긍정하고 난 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반 커뮤니티 활동

저 역시 이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내 성적체성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을 시작해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나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과정도 나 혼자 해결해 왔기에 친구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 혼자만 아니었다면 그토록 힘겹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 내가 동성애자임을 긍정하고 난 후에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이반 커뮤니티를 찾을 수 있고, 같은 경험과 고민을 한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앞으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제 혼자만 짚어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답니다. 저 역시 이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이상 내 성적체성을 부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씩씩하게,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는 남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자라서, 솔직히 당황스러워요. 저는 남자인데 여자로 태어난 걸까요? 평소에 털털하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좋고 떨려요. 앞으로 고백도 해볼 생각이예요. 사귀자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병원에 가면 성정체성 장애, 뭐 그런 걸 판정해준다던데 가서 테스트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남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잘못 태어난 거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참 힘드네요. 정보를 좀 주시면 참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드러내기 어려운 고민이었을 텐데 이렇게 들려주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셨군요. 고백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것이지요? 매우 당황했겠어요. 보통 흔치 않은 일이라 배워 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같은 성의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된다고 하는 사회에서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자이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주 옛날, 동성애나, 동성애자나 이런 낱말조차 있지 않았을 시기에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같은 성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여자 몸에 갇힌 남자'로 생각하면서 남자의 삶을 살아 온 예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시간동안 동성애자 인권 운동도 활발해지고, 우리 사회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거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성애자에 대한 이해도 넓고 깊어지고 있어요. 정신과에 가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정신과는 물론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판별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동성애가 정신질환에서 삭제되었어요. 이미 정신의학계에서는 동성애자 정신질환이 아님을 공표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는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성애자 인권을 탄압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범죄와도 같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동성애 등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던 동성애자 차별 조항도 얼마 전에 삭제되었고요. 동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의 또 다른 사랑일 뿐이죠. 동성애자 역시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정체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인걸요. 나 스스로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나 스스로가 동성의 누군가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답을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를테면, 이렇게 상담을 찾는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본가든지, 관련 도서를 찾아 읽어 본가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계속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트랜스일까요?

우선 전 남자같은 외모를 하고 다닙니다. 짧은 커트에 옷도 항상 헐렁한 스타일만 입고 다닙니다. 여자들과 다닐 때 남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을 하곤 하죠. 택시 문을 열어 준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준다든지. 이반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별 상관없이 있는데 직장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러면 약간 난감해집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 남자냐, 너 레즈냐,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요, 그게 너무 익숙해서. 저는 쪽 저를 그저 이반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남자같이 하고 다니는 건 그냥 편해서구요, 제가 여자라는 거에 있어서 불편하다거나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남자처럼 보이면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실은 제가 속으로 '난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니깐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실은 제가 속으로 '난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트랜스 젠더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남성이라 인식하고 행동해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남성으로 태어난 하리수씨가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경우에서 하리수씨는 트랜스젠더인 것이지요.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씨의 경우, 스스로의 성정체성은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인 남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트랜스 젠더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이유 역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궁무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매우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을 자신의 성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 온 경험을 가집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남성이라고 정체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트랜스 젠더 중 실제로 가슴 절제 수술 등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수술도 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남성과 같은 외모와 여성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이유로 자신이 트랜스 젠더가 아닐까하고 고민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트랜스 젠더로 규정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 머리 스타일, 나의 행동 등 개별적인 몇몇 욕구나 현상으로 내릴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 젠더의 경우 성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그 이유는 트랜스

그러나 자신을 트랜스 젠더로 규정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 머리 스타일, 나의 행동 등 개별적인 몇몇 욕구나 현상으로 내릴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젠더가 성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성을 올바르게 찾은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나의 생물적인 성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 성을 지향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트랜스 젠더인 것입니다. 저 역시 같은 성인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소위 남들이 말하는 '남자같은' 외모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저 편하기 때문에 바지를 걸치는 것이고, 티셔츠를 선호하고, 긴 머리 관리하기가 너무나도 번거롭고 불편하여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주변에서 '남자같다'고 종종 평하지만, 제 자신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남성이 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1970-80년대 동성애나 동성애자 등의 개념조차 없던 당시에 동성인 사람과 사랑을 한 레즈비언들의 경우, 자신을 '여자 몸에 갇힌 남자'로 인식한 레즈비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로 현재에까지 남성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 중의 일부는 자신이 여성임을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우리 단체 회원들 중에는 자신이 동성인 여성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 여성인 자신을 부정하고 남성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제는 자신이 여성임을 긍정하고, 같은 성인 여성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트랜스 젠더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은 내가 레즈비언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투자한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든, 조금 더 나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방문, 고맙습니다.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로서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전 비록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여성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귀어 왔지만, 두 번 꼬여버린 성적체성을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애인도 저를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아니,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내가 여자라는 것, 레즈비언이라는 것어요. 수술을 해볼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군요. 도리 없이 이렇게 '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젠 정말 제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저를 반기지 않아요. 여성 이반 사회에서도 장난을 치는 줄 알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성 이반 사회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 같은 분 또 계신가요?

동성애자와 트랜스 젠더에 관한 사회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성적체성에 관한 이해는 아직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끼리끼리> 상담실을 통해 관련 모임 문의 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경우, 남자 레즈비언(male lesbian)으로 정체화한 사람들의 친목모임과 인권운동단체가 다수 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그와 같은 모임들이 개설되고, 인권 운동 단체들이 설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남자 레즈비언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낮아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이반 커뮤니티 내에서 남이 겪을 고초를 상상하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은 이런 방법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상에는 트랜스 젠더에 관한 많은 모임들이 많습니다. 트랜스 젠더를 위한 친목 모임들도 다수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모임에 참가 하시면서 트랜스 젠더이자 레즈비언인 남의 성적체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임 활동을 통해 트랜스 젠더인 레즈비언들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관련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커뮤니티 러쉬 <http://www.rush.pe.kr>
- ▶ 김비넷 <http://www.kimbee.net>
- ▶ 화려하지 않은 고백 <http://www.okama.pe.kr>

성정체성이 너무 복잡해요.

왜 자꾸 예쁜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알고 지내던 친구가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고 싶어서 말한건데 저는 웬지 설레네요. 이 아이랑 사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 저는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다 싫어요. 왜 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싫어요. 근데 남자 연예인은 좋아 하거든요? 대체 저는 어떤 사람인건지.. 하여간 딱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래저래 고민이 되네요.

'나의 성적체성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성적체성은 한 순간에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변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누가 결정지어 줄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므로 제가 남에게 단순한 정황만을 근거로 성적체성을 속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 관심을 갖는 사람을 일컫지요. 즉 성적체성이란 오로지 성적 관심 때문에 혹은 남자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복합적이고 오랜 시간의 고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넘어 밟고 계신 사람 관계나 그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지켜 보세요.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많아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온전히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혹시 동성애자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회가 성소수자를 비정상이라 말한다고 해서 억지로 고민의 범주에도 끼워 넣지도 않으려는 것은 오히려 성적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민을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성적체성에 관한 고민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친구와 섹스를 했어요.

저는 여자에요. 무척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술김에 장난으로 뽀뽀를 시작한 것이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다보니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4개월쯤 된 것 같은데요. 쭉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 친구랑.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저는 이반인걸까요? 궁금합니다.

동성과 섹스를 했다고 해서 동성애자인 것은 아닙니다. 성적 관심 이외에도 동성에게 정서적·감정적·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호감이 가는지를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본 이후에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넘어 친구분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으셨다고 해도 넘어 자신을 동성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넘어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친구분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섹스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 오셨다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혹시 친구분은 넘어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대해 오신 것일 수도 있으니 일단 친구분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친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성적체성에 관한 고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일단 친구분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친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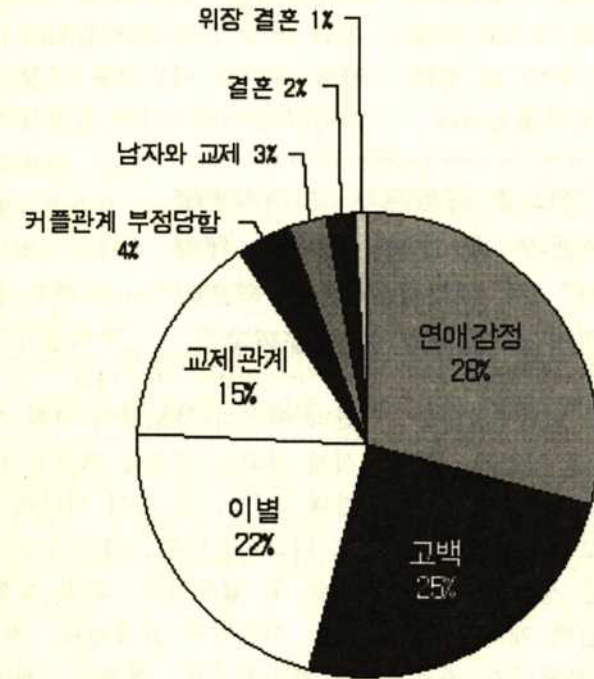
저는 무성애자인가요?

서른이 넘도록 아무도 좋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요즘 들어 주위에서 왜 결혼을 안 하냐는 등, 누굴 만나라는 등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옷차림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좋아해본 사람이 없으니 저의 성적체성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딱히 제가 폐쇄적인 성격이라거나 한 건 아니에요. 친구도 많고 원만히 잘 지냅니다. 별 문제를 못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니 저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넘과 같이 특정 성, 혹은 대상에 대해서 감정적·심리적·사회적·성적으로 정도 이상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보통 '무성애' 혹은 '무성애자'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무성애도 다양한 성적체성 중의 하나로 분명히 존재하는 정체성입니다. 꼭 연애를 해야 하고 누군가와 짝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한 면에서 실패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사회에서 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 겪으신 것처럼 성격이 폐쇄적 이라거나 사회성이 없다는 오해를 받거나 하면, 어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식의 노골적인 눈총을 받게 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과도하게 연애 권하는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에는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이성애 커플, 공적으로 맺어진 관계만이 정상이라는 관념을 확산시키는 결혼제도는 다양한 성적체성 및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비정상으로 몰아가고 있지요. 무성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혼' 으로 골인해야만 한다는 강압은 자신이 생애 걸쳐 형성해 온 지인들과의 공동체를 무시 받는 것이며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괜한 스트레스와 오해를 받아야 하는 일이겠지요. 성적체성은 변화가 가능한 것이므로 넘어 앞으로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넘어 형성해 놓은 관계에 깊이 만족하고 있으시다면 굳이 주변의 성화로 인해 자신의 무성애적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OO애자' 라고 단정하고, 정체화하는 일이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일이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성애도 다양한 성적체성 중의 하나로 분명히 존재하는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무성애적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동성 교제 상담 통계



■ 연애감정 ■ 고백 □ 이별 □ 교제관계 ■ 커플관계 부정당함 □ 남자와 교제 ■ 결혼 □ 위장결혼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동성 교제에 관한 내담 사례는 총 24%(1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 교제에 관한 내담 사례는 연애 감정 자체에 관한 내담 28%, 교제 과정상 '고백'에 관한 내담 25%, 이별에 관한 내담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교제 관계 내·외부에서의 갈등 15%, 주변인들로부터 커플관계를 부정당한 경우에 관한 내담 4%, 이성과의 교제에 관련한 갈등 문제 3%, 이성 결혼을 둘러싼 갈등 문제 2%, 위장결혼의 가능성에 관한 내담 1% 등으로 나타났다.

애인과의 관계를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어 괴롭습니다.

저와 제 애인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둘 다 기반이 닦여있는 것도 아니고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함께 할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애인의 부모님들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택하든가 그 여자한테 이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그치신다면, 애인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애인이 지금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조금만 집에 늦어도 저를 만나고 있는 것이냐고 추궁 하십니다. 그런 생활의 연속이다 보니 애인은 부모님께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주 부모님과 싸워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쓰럽고 안타까워 미치겠습니
다. 애인은 커밍아웃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부모님을 평생 속이고 사는것도 못할 것이지만, 자식이 동성애자라는 슬픔을 안겨드리
는 것보다는 나를
"부모를 택하든가 그 여자한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
라"고 다그치신다면, 애인이
고 해도 끝까지 감
추어질지가 두렵습
니다.

만약 애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이를 아
시게 되고 '부모를 택하든가 그 여자
한테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고 다그치신다면, 애인이 과연 절 선
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을 상상
하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저희, 어떻
게 해야할까요. 현재는, 게이와의 계
약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대부분은 커플관계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애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할 수 없어 괜한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하고, 애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지인들의 성화 때문에 남자와 소개팅을 한다던가 선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부모님에게 커플 관계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의 문제는 강제사항이 되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친구 하나 없는 것인지, 왜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추궁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넘처럼 부모님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 채신 경우 더욱 큰 싸움이 지속됩니다. 부모 자식간에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오가는 것은 본인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며 그 와중에서도 계속 부모님을 속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죄의식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화가 지속되는 경우 차라리 커밍아웃을

동성 커플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대부분은
커플관계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해 훌가분해지자-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지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의식과 자신을 너무 몰라주는 부모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 등에 고통받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커밍아웃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심리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줄 만한 마음 상태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경우 선불리 커밍아웃을 했다가 부모님에 의해 구타를 당하거나 집에 갇히게 되기도 하며 경제적 지원도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도 미리 생각해 보아야 하구요. 따라서 넘처럼 부모님이 자신과 동성 애인과의 관계를 눈치 채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선불리 커밍아웃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니란 것을 납득하실 만한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친분이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만을 위한 계이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위장결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평소 친분이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만을 위한 계이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계이와의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여러 법적 문제도 얽히게 되므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인지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 문제를 놓고 부모님과 끊임없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자기 자신의 마음과 물리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가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 준비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고백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남자친구도 있는 일반이예요. 포기하려고 골백번 마음을 고쳐먹었지만 보기만 하면 만지고 싶고 내 옆에만 두고 싶고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혹시 눈치 채 저를 경멸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하고 친구 이상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주의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술 마시곤 저에게 기대오는 그녀의 행동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여전히 저를 친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녀에게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 이상 친구인 상태로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폭발했어요. 참지 못하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거부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정말 좋은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런 관계를 끊게 만든 제가 원망스럽다고요. 만나면 서로 괴로워질 테니 친구로 지내는 것도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친구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붙잡고 싶은데 자꾸 저를 피하려고 해요. 동성끼리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만 하네요. 그녀에게 쓰레기로 비춰질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남자로 태어났다면 하는 생각만 하루 종일 들다가도 혹시 그녀가 학교에 말하고 다니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왈칵 밀려오기도 하구요.

'당신을 좋아한다'는 고백은 무척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요. 특히 동성애자에게는 고백함과 동시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여러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살펴게 되지요. 물론, 상대가 이성애자였다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마저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더라도 마음을 접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 없이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폭언을 듣게 되면 충격과 이후의 고통이 훨씬 클 것입니다. 상대에게 호모포비아를 앓더라도 고백 전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쌓아 놓는다면 아무래도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은 덜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과정은 하루이틀이 걸리는 일도 아니며 아무리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해도 막상 자신이 고백을 받게 되면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으니 장담할 만한 일이 아니긴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위험부담을 안고 용기를 내 고백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좋아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레기' 취급 받는다는 것은 짐작하기 어려운 고통이겠지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한 상대방에게 넘어 고백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차라리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한 상대방에게 넘어 고백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남에게 하는 것은 아웃팅이며 그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지를 확실하게 인지시키십시오. 고백한 것과는 별개로 마땅히 배려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고 있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서로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헤어졌습니다. 우리 둘 모두 세상의 눈이 무서웠고,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저와 한참 사랑을 나누다가도 문득문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에 누군가는 먼저 떠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거라면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며 제 심장을 들썩여 놓기도 했지요. 그녀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우리 사이를 눈치 챌지도 모를 학교 선후배의 시선이나 부모님의 추궁이 걱정되었고,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 받게 하고 있다는 것도 비참했구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사랑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계속 가져가야 할지, 외롭더라도 두려움은 없을 혼자만의 삶을 택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먼저 이 세계에서 살 자신이 없다며 1년 만에 절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술을 마시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녀도 마찬가지로 잊음에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동성커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떠돌기도 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동성애자의 교제가 이성애자와 달리 자유분방하다기 보다 관계 자체가 사회적 편견과 벽에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커플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는데서 오는 여러가지 오해와 스트레스, '공인'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오는 불안감, 결혼의 압박 등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애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레즈비언 커플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맞닿아 있다보니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서로 사랑하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다'며 헤어지는 커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이런 무기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하려 해도 끊임없이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취급 되다보니 어느새 자신이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생각되기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애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레즈비언임이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애인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둘 관계가 혐오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헤어지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레즈비언 커플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편견과 맞닿아 있다보니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 봤자 소용없다'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선 각자, 또 함께 레즈비언임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헤어지기로 결정 하셨어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여지가 있으신 거라면 둘 관계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무기력함이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찾아 활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만 고립되지 말고 어떤 통로든 둘 사이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그녀가 절 피하는군요.

그녀와 전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입니다. 저도 그녀가 절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동거도 3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변해버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모두 부정하고 저와 연애했던 적도 없고, 그냥 언니같이 생각했던 거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그냥 아는 언니에게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묻자 원래 친한 여자친구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되려 화를 냅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친구들에게 여자한테 전혀 관심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는데, 이제는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미안함도 없이 남자를 만나고 다니며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다고까지 말하는 그녀에게 저는 그냥 장난으로 만나본 사람이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불행하게도 레즈비언 커플 중 한명이 이전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사귀었던 시간을 아예 없는 것처럼 말한다면가 이 경우처럼 단지 언니로, 동생처럼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함께 한 시간들이 부정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경험은 정말 다시 겪기 힘든 끔찍한 경험 일 것입니다. 게다가 레즈비언 커플 관계는 주변에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헤어지더라도 본인이 왜 고통스러운지를 드러낼 수 없어 더욱 힘들실 겁니다.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데 대한 불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 그대로 본인과의 관계가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건 사귀는게 아니라 그저 친한 친구사이다, 여자끼리 어떻게 연애가 가능하냐는 식으로 주입받아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레즈비언 커플 관계에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을 동성커플 관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해해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상대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을지라도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은 본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이지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하지 않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라 하더라도 함께 한 시간은 분명 존재 했었고 동성 커플의 관계가 그저 친구사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되, 상대가 그런 태도를 취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성애자였습니다.

저는 그 언니를 알기 전엔 한 번도 여자에게 호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쉬하지 않았다면, 그 언니에게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구애 해오는 언니에게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저를 너무나 아껴주었기에 신뢰감이 들었고, 저도 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던 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남자를 만나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저를 이렇게 이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신이면서 무책임하게 떠나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택한 건 자살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술을 마셨었는데 깨보니 병원이더군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를 사귀면서 잊으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게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겠습니다. 성관계도 거북하게 느껴지구요. 저는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 수 없게 된 것인가요?

이별을 겪고 난 이후 고통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이성애자였던 본인이 사회에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동성커플' 관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사귀자는 제안을 허락 하셨을 텐데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니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셨던 것이 실연의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성적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적체성은 누가 마음대로 만들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여자와 사귀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며, 다시 남자를 사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와 사귀는 경험으로 자신의 성적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한 두 번의 경험으로 성적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적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자를 사귀어 보려고 조바심치기 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고 올바른 정보를 접해 보는 것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판단하는 데 더욱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한 섹스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일반입니다. 애태우다 어렵게 용기를 내 고백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더군요. 포기하고 잊으려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꾸 스킨십을 유도해와 어리둥절합니다. 일반임이 분명한데도 제가 만지면 신음소리를 내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엔 가끔 같이 자기도 하는데 그녀는 제가 남자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저를 사랑해서 저와 같이 자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섹스 상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남자와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제 사랑이 그냥 거부당한 거라면 이렇게 분노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성 간의 관계를 이성애자의 교제와 달리 가벼운 것으로 취급해 아무리 진지한 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에 의해 한 때의 감정 혹은 친구간의 도가 좀 넘은 장난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스킨십을 했던 것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해하셨던 것은 당연합니다.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우선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동성 간의 이러한 관계도 진지한 것임을 다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상대가 동성 간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괜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이후의 고통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동성 간의 이러한 관계도 진지한 것임을 다시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는 홀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어머니는 유독 결혼을 서두르셨지요. 집안의 성화에 괴로워하던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포기하고 결혼해도 되겠냐고요.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경제적 기반도 잡히지 않았는데다가, 저는 그녀와 같은 여자니까요. 그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버렸습니다. 평생 드레스 따위 입지 않을 거라던 그녀가 억지로 결혼 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헤어진 후로 한 번도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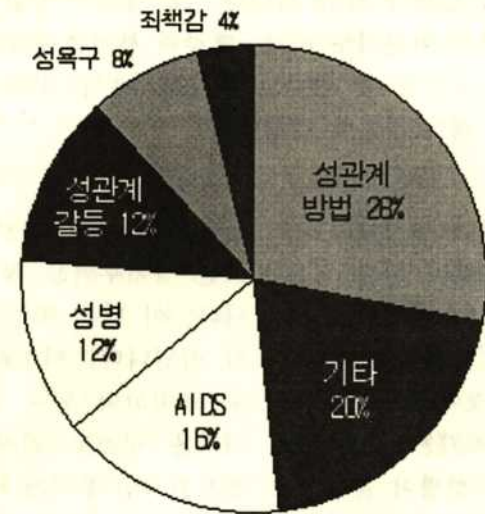
다. 괜히 연락해서 남편이나 가족이 그녀를 의심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구요. 그러나 간간히 들려오는 그녀에 대한 소식은 저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생활인 듯합니다. 최근에 가끔 말없이 끊기는 전화가 그녀인 것만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한 결혼생활로 밀어 넣은 것이 꼭 저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녀를 잡았어야 했을까요? 그녀는 잡아주길 바랬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나뉘었던 걸까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결혼을 중용하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한 채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런 애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텐데 안타깝게도 레즈비언 커플들은 이런 경험을 흔하게 겪고 있지요. 아무리 주변의 성화가 심했더라도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맺어왔던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관계들을 정리해야 하고 더욱이 지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만 하니까요. 그녀를 지켜보는 남은 자신과 사랑했던 과거를 부정당한 것 같아 훨씬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한 채 감행한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흐르는 경우이겠지요.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결심이 흔들리기 전에 빨리 해버리자'라거나 '아무하고라도 상관없다'라는 감정적인 생각으로 결혼 상대를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결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현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분의 불행도 이와 같이 결혼을 해야겠다는 강박으로 결혼 상대를 신중히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예전 애인과의 관계 뿐 아니라 자신이 맺어왔던 레즈비언 커뮤니티 친구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고립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결혼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함께 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그녀 옆에 존재 할 것이라고 안심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한 채 남자와 결혼을 하거나 그런 애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텐데 안타깝게도 레즈비언 커플들은 이런 경험을 흔하게 겪고 있지요.

□ 성관계 상담통계



■성관계 방법 ■기타 □AIDS □성병 ■성관계 갈등 ■성욕구 ■죄책감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성관계 관련 내담은 6%(25건)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성관계 방법에 관해 문의하는 내담 28%로 나타났다. 에이즈 관련 내담 사례는 16%, 성병 관련 내담 12%, 성관계 안에서의 갈등 문제 12%, 성욕구에 관한 내담 8%, 죄책감 4% 등으로 나타났다.

동성간에 안전한 섹스를 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애인과 수개월 째 섹스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나 그런 것에 관한 지식은 없어도 주위들은 것들로 어느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여자들끼리 섹스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애인이 성관계 갖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 부분이 가렵기도 하고, 빨갛게 부어올랐다 가라앉았다가 하고, 냉도 이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요. 혹시 성병 같은 게 아닐까 걱정되더군요. 여자들끼리 해도 성병에 걸리나요?

레즈비언 간 섹스는 게이나 이성애자 간 섹스보다 성병이 옮을 위험이 훨씬 적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섹스를 하는 것이 넘 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겠지요. 레즈비언간 섹스에서 성병이 옮을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질 분비물 내 세균이 입이나 손, 성기의 상처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고 강한 섹스를 했을 때 성기 부위에 상처가 나면 그곳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성기부위를 마찰하거나, 성기구를 공동으로 쓰거나 하면 더

것은 성기구를 따로 쓰는 것이겠지요. 또한 성기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비누로 자주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질 부위는 산성으로 유지되어 있어 세균이 잘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누로 씻으면 이 부위가 중성이 되어 세균이 보다 잘 자라게 되지요. 성기 부위는 따뜻한 물로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성기 부위가 습하면 세균이 보다 잘 자랄 환경이 됩니다.

이외에 만약 본인이나 파트너의 질 분비

레즈비언 간 섹스는 게이나 이성애자 간 섹스보다 성병이 옮을 위험이 훨씬 적은 게 사실입니다

잘 전염이 되겠지요. 안전한 섹스가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입과 손 그리고 성기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게 섹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되도록 짧게 깎아 두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한 방법이겠지요. 손가락에 콘돔을 끼우거나 성기에 페미돔을 덮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기구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자주 살균 소독하시고, 더욱 좋은

물의 형상이 노래지거나 냄새가 나는 등 변화가 생기면 성병을 의심해서 산부인과에 가더라도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은 안심하시구요. 여성의 성병은 보통 오랫동안 재발하면서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병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끼리도 에이즈를 조심해야 하나요?

여기 저기 글을 읽어 보니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걱정하라는 말이 가장 많던데, 얼마 전에 한겨레 기사를 보니 에이즈 환자 중에 여자들끼리 섹스해서 에이즈 걸렸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제 앤과 섹스하기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에이즈에 걸릴까 해서요. 여자들끼리 섹스 해도 에이즈에 옮나요? 그게 걱정되면 섹스하지 말아야 하나요?

동성 간 섹스를 하는 것과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동성 간 섹스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 편견 때문에 퍼진 사회적 편견일 뿐이지요.

일반적으로 에이즈가 감염되는 통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에이즈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산모의 임신이나 분만 도중에 혹은 감염된 엄마의 수유를 통해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에이

즈 보균 상태가 아니면 레즈비언간 섹스이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릴 이유는 없으며, 안전한 성관계를 가져왔으면 에이즈에 걸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동성간에 섹스만 해도 에이즈에 걸린다는 생각은 이성애 사회가 만들어낸 지독한 편견이지요. 님이 보신 한겨레 기사는 동성애자가 가질 수 있는 걱정을 과장해서 선정적으로 쓴,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입니다. 이미 동성애자 단체들이 그 기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섹스할 때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 간 섹스를 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 편견 때문에 퍼진 사회적 편견일 뿐이지요.

동성간의 성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둘 다 한 번도 섹스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서로에게 첫사랑이거든요. 서로 섹스를 원하고 있는데도 여자들끼리 섹스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간의 성관계 방법에 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방법이 있고, 커플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성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요.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섹스 이전에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서 자극하는 전희 단계를 가진 후에 손가락이나 성기구를 삽입해서 하는 삽입섹스, 성기 부위를 입술과 혀로 자극하는 오랄 섹스, 서로의 성기를 마찰시키는 트라바디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문을 자극하는 애널 섹스를 하기도 하구요. 한 가지 방

법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지넷 <http://tgnet.co.kr>의 <마법의 성>이란 코너에 가 보시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곳에 좀 더 다양한 섹스 패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해피이반 (<http://happy2van.com>)이란 사이트에는 <섹스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 편의 가이드 비디오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 채운 씨가 쓴, '레즈비언 섹스 말하기'라는 제목의 책도 buddy79.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관계를 청산하고 나면 이성과도 섹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 중반이 될 때까지 한 사람만 주옥 사랑해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 첫사랑인 셈이지요. 그녀는 자기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니 그녀는 남자를 좋아해 언제라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건 그녀가 저와 헤어지고 나면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동성애 관계를 맺으면 다시 이성애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지요.

동성과 섹스를 한다고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며 동성과 섹스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성과의 섹스를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인 것과 동성과 섹스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성에게 심리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과 섹스를 한다고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며 동성과 섹스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성과의 섹스를 불쾌하게 생각할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분들 중에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 동성애자는, 혹은 동성과 섹스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님과님의 애인인 분은 섹스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

모든 면에서 관계를 맺어 오셨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모두가 자신을 '동성애자'로 정체화 하는 것은 아니니 혹시 님의 애인분께 동성애자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성정체성은 살아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 자신만이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성과 연애를 하면서도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양성애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로 살아갈 삶이 부담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자인 것이 불안해서라면 레즈비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님과 연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싶어서라거나 님과 헤어지고 싶어서라고 선불리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없고 별로 스타일도 아닌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잘 때마다 이상하게 스किन쉽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욕구 불만이려니 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에 와서 마음에 없다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확실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지 않은 저의 문제가 크겠지만 정말 그 친구에게 무어라 해야 할지... 그 친구는 갈수록 저에게 기대하는 게 커지는 거 같습니다. 이러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무어라 할지 모르겠구요. 조언 바랍니다.

섹스는 꼭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의 일부분이 섹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한 사람과만 섹스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섹스 파트너 관계를 맺기도 하지요. 그러한 선택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과연 상대도 다만

섹스파트너인 관계를 원하는지 사전에 물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요. 만약 상대방이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행동을 취하시던지 상대방과 대화

어떤 행동을 취하시던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기분 상할까봐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차일피일 지내는 것은 이후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나은 해결책이 아닐까요.

애인이 성관계를 피합니다.

애인이랑 사귀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 정말 이 사람 좋아하구요. 만나면 뭐든 다 해 주고 싶어요. 평소에 이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성관계 문제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관계가진 것도 열 번이 채 못 될 정도예요. 그냥 자기는 성욕 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아님 동성간의 성관계가 더럽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저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성애자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거든요. 갈수록 욕구 불만은 쌓여만 가고.. 뭐라고 조언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섹스는 관계를 맺는 방식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남과의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애인 분이 성욕이 없는 분일 수도 있고, 성관계에 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남의 말씀대로 은연중에 동성간의 성관계에 대한 혐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남과 같은 상황을 겪는 동성애자 커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감한 문제라 잘 이야기기도 못 하고 지내기도 하죠. 다른 이에게 상담하기도 힘들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플 간 대화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지나치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조르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구요. 만약 정말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면 성관계 자체보다 전반적인 동성애혐오 감정의 문제이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동성애자 모임 활동을 한다거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책을 함께 읽거나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의 욕구만 계속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과 애인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는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애인의 성욕이 지나칩니다.

사귀지 2년 되어 갑니다.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1주일에 1번 하면 좋다고 말하던 애인이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자고 조릅니다. 오래 사귀면 점점 횟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반대입니다. 횟수 뿐만이 아니라 애인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해서 전 힘들지만 내색 안 하고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정말 피곤한데,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애인이 실망할까봐서요. 어찌 하면 좋을까요?

커플들 간의 성 생활이 언제나 유쾌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요. 서로 일치하지 않은 지점도 많고, 그게 커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마다 서로가 즐거울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나가면서 성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자칫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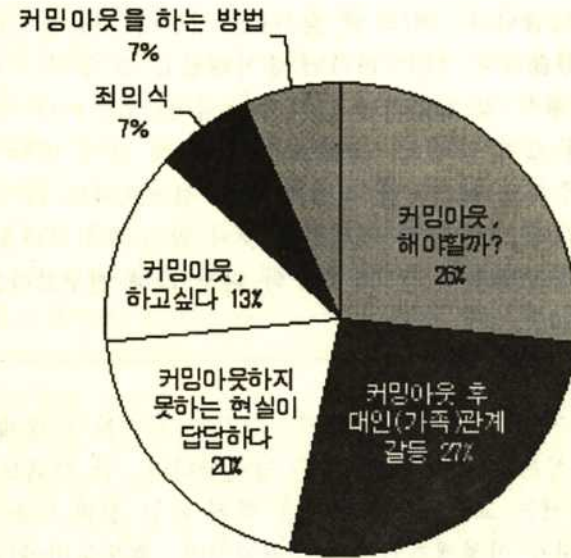
애인분의 성욕이 지나치다고 여겨지고, 그것이 본인의 성생활을 즐기는 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다소 애인의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의 불만이 이야기 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간다면 성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서나 애인 분에게 있어서나 좋지 않겠지요. 한번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관계는 함께하는 것이므로 둘 모두 즐거울 때 애인분도 더 즐거울 수 있으실테니 분명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오르가즘이 안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앤이랑 사귀지 두 달 되어 가요. 섹스를 지금 애인이랑 처음 해 보았거든요. 근데 느낌이 안 왔어요. 흥분도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처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자꾸 해도 흥분도 안되고 오르가즘이란 것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워낙에 다 그런가보다 하다가도 혹시 내가 이 사람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고민도 되고. 다른 건 다 만족하거든요. 근데 왜 오르가즘이 안 오는 걸까요? 답을 듣고 싶어요.

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 채 섹스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적 흥분은 일반적인 방법, 기술적인 멘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발만 간지럽혀도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랜 전희 시간이 있어야 하는 사람 등 사람마다 느끼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지요.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는 파트너분과 함께 찾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일례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했던 커플의 경우에는 애무의 기간을 늘린다든가 분위기를 낭만적으로 꾸민다든가 장소를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두 분이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 상담통계



- 커밍아웃, 해야 할까?
- 커밍아웃 후 대인(가족)관계 같음
- 커밍아웃, 하고 싶다
- 죄의식
-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커밍아웃 및 대인관계에 관한 내담은 4%(15건)를 차지했다. 커밍아웃 후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에 관한 내담이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좋을지,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내담이 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내용의 내담은 20%,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낸 내담이 13%.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과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내담이 각각 7%씩을 차지했다.

고백한 후 어색해졌어요.

전 지금껏 줄곧 이성애자인 친구를 짝사랑 해왔습니다. 물론 제가 이반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었지요. 그 친구가 이반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포비아에 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술 마신 정신에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고백해 버렸습니다. 나는 여자만 좋아해왔고 그 상대는 너라고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엔 좀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론 저에게 연락을 잘 해 오지 않네요. 그래도 1주일에 몇 번씩 연락 주고받던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술김에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것이 많이 후회되네요. 그냥 평범한 친구로만 남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 친구와 다시 그냥 친구로라도 잘 지내고 싶어요. 어찌 해야 하나요?

중 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래도 고백은 하기 힘든 것인데, 동성애자에게는 고백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상대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호모포비아는 없는지도 미리 생각해보아야 하나까요. 님이 좋아하시는 분께선 이성애자라도 호모포비아에 없는 분이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호모포비아에 없는 사람이더라도 정작 자신의 주변인이 동성애자라고 하면 태도를 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시선을 보내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게 피하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대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색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속아왔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낀 것일 수도 있지요. 님이 고백한 상대방께서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갑작스런 고백에 당황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상대방께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고백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님을 위협한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는 아웃팅이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고백한 것과는 별개로 님께서 당연히 배려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분께 좋은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의 성향을 알아 버렸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부모님께 고자질해버린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어찌 된 일이나고 저에게 화를 내십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동성애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셨고, 완고한 성격이십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사회인으로서 독립도 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일단 적당한 말로 둘러대긴 했습니다. 한때 그런 거고 지금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여러가지로 의심이 가나 봅니다. 저에게 오는 전화 하나하나도 체크하실 정도예요. 언젠가는 터질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나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동생에 의해 부모님께 아웃팅 되셨군요. 정말 많이 놀라고 괴로우셨을 겁니다. 커밍아웃은 누구를 상대로 하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성애자들 대부분이 부모님께 만큼은 더더욱 숨기려합니다. 되돌아오는 파장이나 아픔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커밍아웃을 결심하는 분들, 그리고 님의 경우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눈치채게 되셨을 때 차라리 뻔뻔이 밝히자는 생각에 커밍아웃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동성애자가 자녀라는 사실은 부모님께 엄청난 고통일 것이므로 그런 고통을 감당하실만한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동성애자인 것을 안 이후 ‘정상’으로 고쳐보겠다고 자식을 가두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거나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독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할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커밍아웃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해지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본인이 부모님께 보다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커밍아웃하시는 것이 본인이나 부모님에게나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님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흔적을 남기지 마시고 당분간 행동을 조심하시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커밍아웃을 결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쪼록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독립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할만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커밍아웃보다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동성애자 친구를 만나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 제가 동성애자임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힘든 건 주위에 저와 같은 동성애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소수로 알고 있는 동성애자 친구와의 관계도 그냥 일반 친구와 같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네요. 좁은 데서 관계가 부딪히다 보니 원래 이반친구와의 관계들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좀 더 다른 곳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특히 동성애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으려고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니까요. 자신이 지지받고, 또 지지할 수 있는 동성애자 모임을 찾거나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성애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인터넷 상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하기도 하고 레즈비언 바를 찾거나 채팅을 하기도 하지요.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려는 시도는 권할만 합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려는 시도는 권할만 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 맞는 커뮤니티인지 판단해 보지도 않은 채 무작위로 또 익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웃팅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인간관계의 범위를 넓혀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갖게 되다보면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 어디에서든 그런 말다툼이나 틀어짐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신에게 맞는 커뮤니티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분쟁이 크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똑같은 분위기이거나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가 있으니 님의 성격, 취미 등과 맞는 커뮤니티인을 지를 사전에 판단해 보고 활동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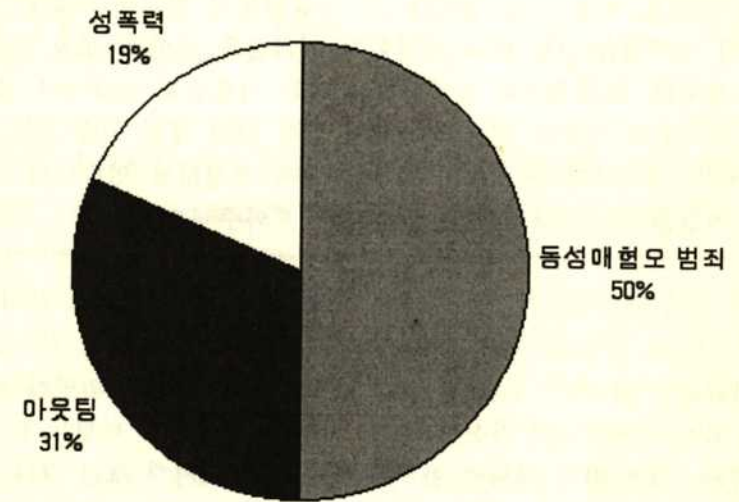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고 싶습니다.

저에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서로에게 비밀 같은 건 없는 사이이죠. 서로 아낌없이 대하는 사이이구요. 하지만 그 친구에겐 제가 이반이라는 사실 하나는 그 동안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저의 다른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지요. 그 친구에게만은 말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꾸 들면서도, 망설여지는 건 그 친구는 확실한 이성애자인데다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커밍아웃을 했다가 그 친구가 절 멀리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말까도 생각하다가, 그건 또 그 친구를 속이는 것 같아서 불편하군요.

동성애자에게 있어 커밍아웃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커밍아웃 하고 싶은 욕구는 매우 높습니다. 커밍아웃 하게 되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숨기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지지받게 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여러 사람에게 아웃팅 되어 호모포비아적 언사나 행동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커밍아웃 여부는 온전히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며 누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커밍아웃 이후 더 진솔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이후에 동성애 혐오 범죄를 겪게 되는 것은 본인이므로 선불리 커밍아웃을 하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커밍아웃 해도 좋을 친구인지 아닌지는 님께서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호모포비아에 있는 것은 아니니 아예 커밍아웃을 포기하지는 마시고 님에 대한 친구분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커밍아웃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님의 성정체성을 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절대 잊지 마시구요.

친구분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 폭력범죄 상담



■ 동성애 혐오 범죄 ■ 아웃팅 □ 성폭력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상담 사례 중 16건(4%)의 폭력 및 범죄에 관한 상담이 접수되었다. 동성애 혐오 범죄 관련 상담 50%, 아웃팅 관련 31%, 성폭력 관련 19%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아웃팅 당했어요.

저와 저의 애인은 학교에서 만나 교제 중입니다. 저희는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키스를 했는데, 누군가 저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저희를 둘러싼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계속 수군거리고, 대놓고 욕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문이 더 퍼지는 것이 두려워서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 함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을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웃팅이라는 것이 레즈비언인 당사자에게 심을 받아 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지 겪어 다' 라고 하면 '아닌 것' 입니다. 이 부모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만큼은 의견한 자세로 대처하려니 그렇게 쉽게 이곳저곳에 자신이 목격 고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의견한 척 한 바를 알리고, 결국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하기' 로 대처해 보는 겁니다. 학교 문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 의 경우에는 일단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셧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많이 아픈니 있는 만큼, 적극적인 부정을 하기가 쉬워 다. 커밍아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성적체성 드러나는 일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의 태도 을 겪게 되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 로 일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가 더욱 노골화되고, 피해가 극심해 질 생각이 복잡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손 경우, 목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우선, 부 '그것은 오해일 뿐이다' 라는 식의 주장 모님에 관해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 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 다. 학교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 론,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더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고 싸워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것을 들이 밀면서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겠 동안의 고민과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 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지 않다면 말입니 니다. 만약, 커밍아웃을 할 계획이 없고 다. 우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외모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회피' 의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평소에 다소 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커밍아웃을 할 계획이 없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회피' 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정체성은 언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 평소에 철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어 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늘 준비를 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반 커뮤니티를 하고, 철저하게 숨긴다고 해도 언제고 드 통해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러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숨기고만 있 겁니다. 또한 커밍아웃에 대해서도 진지 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 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늘, 숨기고, 든지 아웃팅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부정하고, 회피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한 (부모님께 역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커밍아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늘, 숨기고, 부정하고, 회피하는 방법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협박하십니다.

저와 애인의 교제 사실을 저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대인의 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그 집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애인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헤어지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불안하신지 마침내 제게 유학을 가라고 종용하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정 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다만 동성을 사랑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겪어야 하는 아픔은 정말 큰 거 같습니다. 일단 님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겪고 계시는 피해가 너무 큰 것이어서 어디서부터 손대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많이 힘들겠지만, 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이라도 잘 선택해서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부모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든지 하면서 일단 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조치를 취한 후 유학 등 님의 거취에 관해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께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이란 것이 어렵긴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님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유학 등 님의 거취에 관해서는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을 부모님께 강조해야 합니다.

커밍아웃한 친구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저에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 할까 말까 망설임 끝에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좀 당황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냥 잘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가 학교에 가 보니 소문이 짝 퍼져 있더군요. 제가 여자를 사친다고. 그 친구가 다른 사람 몇 명에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니기가 싫습니다. 모두들 저를 별종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어찌해야 하나요.

우선 현재 진행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문이 퍼진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자에게 있어 아웃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웃팅 결과가 얼마나 구체적인 피해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커밍아웃을 한 그 친한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알려줘야 합니다. 동성애자에게 있어 아웃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웃팅 결과가 얼마나 구체적인 피해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당장은 매우 당황스러워서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소문이 퍼져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입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에게 현실을 이해시키고, 함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 스스로 아이들에게 알려진 사

실을 수습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함께 수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정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이 참에 일정 정도의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커밍아웃을 할 경우에는, 아웃팅을 위협성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넘어 보다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바심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한다는 것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 한다는 것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동생이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제가 쓴 일기와 옛 애인으로부터 온 편지를 다 읽어보고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어찌 된 일 이냐고 저에게 화를 내십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동성애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셨고, 완고한 성격이십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아직 사회인으로서 독립도 하지 못한 상태이구요. 일단 적당한 말로 둘러대긴 했습니다. 한때 그런 거고 지금은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한번 의심하고 나시니 계속 의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오는 전화 하나하나도 의심하시고 그러십니다. 언젠가는 터질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지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군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도저히 그러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부모님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커밍아웃은 힘들겠지만, 특히 가족, 부모님께 하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는 고민이며,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시고, 많은 충격을 받아서 저를 때리거나,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동성애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4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부모님이 저를 온전하게 이해해 주시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구타를 하거나 결혼을 강요하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릴 경우, 부모님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지는 당사자인 본인만이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선, 커밍아웃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모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예상하는 반응 별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예상하는 반응 별로 어떤 방식의 대응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동성 친구가 성폭력을 가해 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친한 동성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의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제가 자취하는 와중에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지요. 서로 생활하는 데에는 별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노골적으로 농도 깊은 애무를 해 올 때 저도 모르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그 친구가 제가 자는데 몰래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그 친구나 스킨십을 좋아하고 스스로없이 스킨십을 하는 사이라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요. 근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네요. 노골적으로 농도 깊은 애무를 해 올 때 저도 모르게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깊이 잠든 것처럼 꾸미면서 항상 넘어가거나 잠꼬대처럼 손을 치우거나 하지만 그게 몇 달간 계속 되니깐 정신이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겠고 그 친구 보기도 두렵습니다. 다음날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내는 생활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동성애자인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하고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 먼저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동성 간 성폭력은 꼭 동성애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폭력을 행하는 /당하는 주체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동일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하거나 덜한 건 결코 아니지요. '스스로없이 스킨십을 하는 사이' 라고 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한다면 그건 '폭력'입니다. 일단, 친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네가 내게 하는 것은 성폭력이다. 나는 이런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 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난 후 친구의 반응이 어떠한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일단 "나는 원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이후로 노골적으로 포비아를 드러내는군요.

우연한 기회에 동아리 친구에게 커밍아웃 했어요. 커밍아웃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동아리 내 저와 애인 관계를 눈치 채고 넘겨짚었는데 제가 그만 당황하고 얘기를 한 것이지요. 본의 아니게 애인을 아웃팅시켜 버렸는데 그 후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친구가 이른바 동성에 혐오자였던 거죠. 그게 뭐냐고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그만 사귀라니 어찌라니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친구에게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였지만 그 친구는 제 말을 듣지를 않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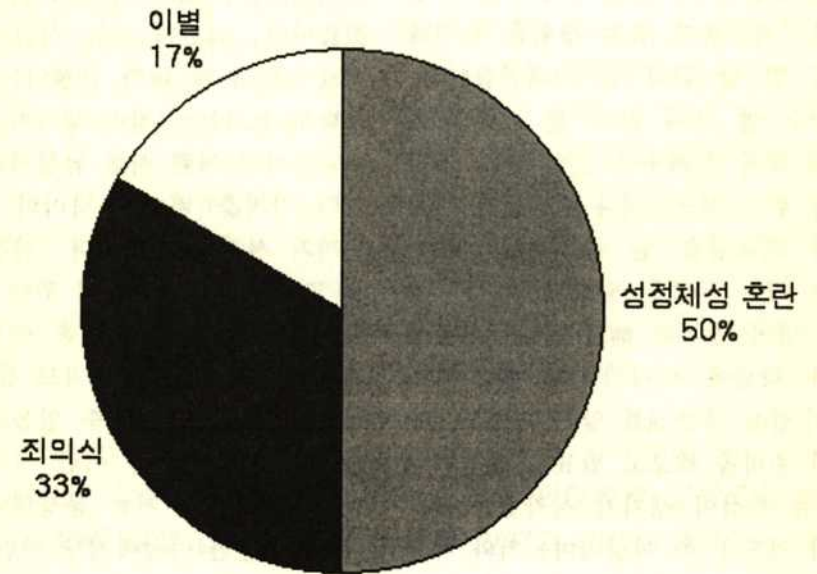
'어찌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친구에게 성정체성이 드러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하는 생각에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만큼 신중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선 님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친구로 인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친구로 인한 아웃팅 위험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웃팅 위험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에 혐오를 가진 친구라면 동아리 내에서 아웃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 하니까요. 친구가 동아리 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애 혐오를 드러낼 수도 있지요. 우선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친구에게 철저히 다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님과 애인, 그리고 그 친구를 둘러싼 상황을 잘 파악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람들 생각은 그런 친구 다시는 안 보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통 생각이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쉽게 베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든 계속 같이 보아야 할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 친구를 믿고 커밍아웃을 한 만큼 그 친구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면서 설득한다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면서 설득한다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 기혼여성 상담 통계



■성정체성 혼란 ■죄의식 □이별

2000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447건의 내담 사례 중 기혼여성에 관한 내담은 3%(12건)를 차지했다. 기혼 여성 내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토로하는 내담이 50%, 동성애적 감정을 경험하거나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죄의식에 관한 내담이 33%로 나타났다. 이 외에 동성 교제 과정에서의 이별 문제에 관한 내담이 17%를 차지했다.